

2020년도 3분기 해외교류 공모사업 심사총평

2020년도 3분기 해외교류 공모사업에는 지난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6개 언어권으로 9건의 해외교류 사업이 접수되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권 4건, 독일어권 1건, 우크라이나어권 1건, 일본어권 1건, 리투아니아어 1건, 아랍어 1건이며 행사성격별로 구분하면 문학축제 2건, 문학행사 2건, 학술 2건, 문예지 1건, 한국 작가 및 작품의 프로모션 사업 등 기타 2건이다.

이렇게 접수된 6개 언어권 9건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의 실현가능성,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한국 문학의 홍보 확산 효과,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각자 사업계획서와 예산 집행 계획 세부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사 결과로 접수된 9건의 해외교류 사업에 대해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청사업의 성격 및 소요예산의 산출 세부내역, 자부담 비중 등 예산 집행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사업별 지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였다.

■ 언어권별 최종 선정현황 : 총 6개 언어권 9건 해외교류 사업

(영어권 4건, 독일어권 1건, 우크라이나어권 1건, 일본어권 1건, 리투아니아어 1건, 아랍어 1건)

언어권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

영어권에서 신청한 '미국 PEN 아메리카 온라인 번역 컨퍼런스'은 한국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현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체 소요예산 중 높은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시카고 리뷰에서 신청한 '한국 현대 시 특집' 사업은 한국 현대시인 12인의 작품을 위주로 한국 시 특집으로 구성되는 사업으로 해당 문예지의 미국 내 권위와 영향력 등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영국 퀸즈 컬리지(Queen's College)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온라인 행사 개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당초 계획에서 변경 사항 등을 충분히 보완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다음은 '영국 리틀 브라운(Little Brown) 출판사 『7년의 밤』 프로모션' 사업이다. 한국의 대표적 장르소설인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영국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의 대표적 장르소설과 작가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지원을 결정하였다.

독일어/우크라이나어권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베를린국제문학축제와 우크라이나 내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오데사국제문학축제에 한국의 문정희 시인을 초청하여 낭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양국의 대표적 문학축제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 시를 소개하며 향후에는 더 많은 한국의 작가와 작품이 소개되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하며 ‘독일 베를린, 우크라이나 오데사 문학축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어권에서는 ‘일본 쇼시칸칸보(書肆侃侃房) 『아홉번째 파도』 온라인 한일 작가대담’ 교류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국가 간, 작가 간 문화예술교류활동이 이번 신청사업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류방식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이러한 교류방식에 대한 지원 또한 계속 늘어나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투아니아어권은 ‘발토(BALTO) 출판사 한국 베스트셀러 작가 프로모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리투아니아 현지에 한국의 소설을 연달아 소개해 온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국 문학이 아직 생소한 소수 언어권에 한국에서 환영받았던 작가의 작품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현지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랍어권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요르단대학 한국 단편소설 번역대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한국문학이 현지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번역 대회 개최가 한국문학의 잠재적 독자가 될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알리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3분기 해외교류 신청 사업은 해외 각 지역의 권위 있고 저명한 기관과 단체들의 신청을 비롯하여 국가의 대표적인 문학 축제의 신청이 눈에 띄었다. 또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비대면 접촉방식의 온라인 교류 사업에 대한 신청이 늘어난 것도 기존의 교류사업과 달라진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 교류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문학을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선정단체 모두에게 당부 드린다.

2020. 7. 28.

심사위원장 강보경 (인)